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519-14

KOICA
지구촌 행복시대, KOICA가 함께합니다.
제39호 | 2017. 12월

개발과 이슈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 과정 검토 II

1. 2017 UN HLPF 개요
2. 주요 SDGs 이행 과정 검토
3. 자발적 국별 검토 (2017 VNR)
4. 2017 UN HLPF 의의 및 향후 일정

UN ECOSOC 주관 하에 2017년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뉴욕의 UN본부에서 2017년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SDGs 이행 과정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자리로, 2017년 포럼은 빈곤 퇴치와 번영(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을 주제로 SDG 1, 2, 3, 5, 9, 14, 17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더욱 확대된 규모로 진행되었다.

SDGs 이행 두 번째 해를 맞이하여 SDGs 주요 목표에 대한 논의 및 각 국의 SDGs 관련 이행 평가가 이루어졌다. 전반적인 의견은 SDGs 이행을 위한 각 계각층의 노력이 수반되고 있으며, SDGs 이행을 위한 데이터 매칭, 기관 간 협업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검토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지표 수립 및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아직은 초기 이행 단계로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전략 수립 및 이행 수단 개발에 대한 논의 및 행동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HLPF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SDGs 이행 동향을 파악하고 그 방향성 및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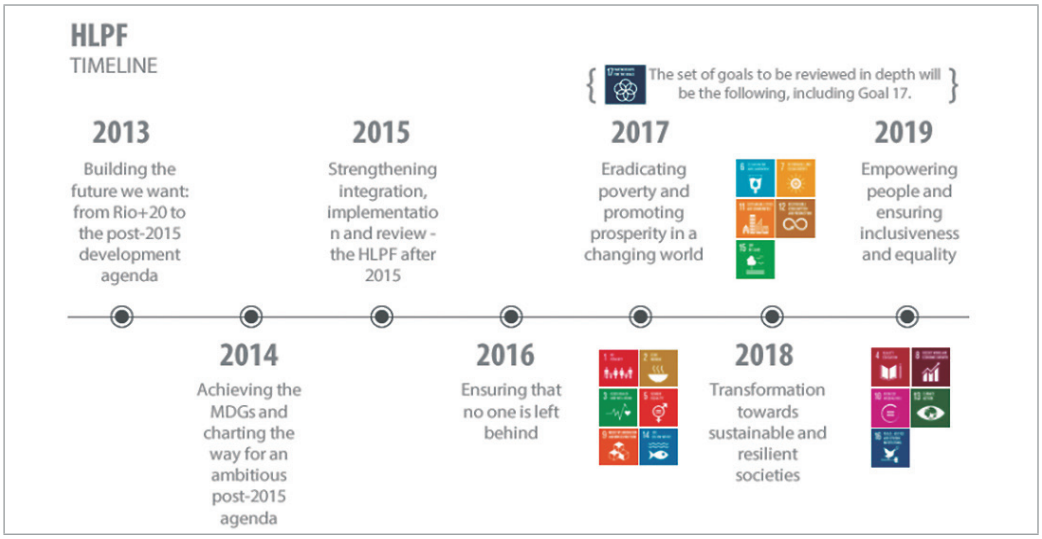
ODA연구원 윤유리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ORLD FRIENDS KOREA

1. 2017 UN HLPF 개요

2017년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HLPF(High-Level Political Forum: 고위급정치포럼)는 2016 HLPF에 이어 SDGs 이행 과정에서의 도전과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2년 6월 UN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의 결정으로 수립된 UN HLPF는 SDGs 이행 방향과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그 과정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행동지향적인 의제를 설정하는 데 그 목적[1)]이 있다. 이후 2016년 1월 발표된 UN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HLPF가 매년 다루어야 할 의제로 1) SDGs 경과 보고서, 국가 검토 및 지역 검토를 포함한 전반적인 진전 상황 점검, 2) 주제별 검토와 SDGs 하위 그룹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분야별 진전 상황 검토, 3) SDGs의 이행 수단에 해당하는 목표 17에 대한 검토와 아디스아바바행동 계획 이행 과정, 4)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SDGs의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한 방법으로는 SDGs 목표를 그룹별로 검토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림 1] HLPF 타임라인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웹사이트

1) A/RES/67/290

2016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HLPF는, SDGs의 이행 결과에 대한 검토보다는 향후에 있을 HLPF에 대한 후속 조치와 검토 방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초점을 두었다. 1년간의 활동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살펴보고 향후 3년 간 HLPF를 통해 각 주제별 목표를 검토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Spotligh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7"을 발간하여 SDGs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각 및 다양한 각도에서의 SDGs 이행 현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G20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이슈와 SDGs 목표를 연계하여 심도 깊게 다루는 등 국제사회의 SDGs 이행을 위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지게 되었다.

2017 HLPF는 빈곤 퇴치와 번영(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이라는 주제하에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약 열흘에 걸쳐 UN ECOSOC 의장(2016.8-2017.7 Frederick Musiiwa Makamure Shava 주UN대표부 짐바브웨대사) 주관으로 지속가능성 고위담당관 포럼(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Forum)과 26개 공식 회의, 147개 부대 행사, 9개 학습 과정(learning courses) 및 기타 스페셜 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다양한 회의 및 행사를 통해 SDGs 시행 2년 차에 돌입한 목표 1, 2, 3, 5, 9, 14, 17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SDGs 경과 보고서(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였다. 17-19일에는 총 43개국의 자발적 국별 검토(VNR)에 대한 국별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현재 약 30% 정도의 국가가 VNR에 참여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의 경우 두 번째 VNR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다수의 국가들이 SDGs 이행에 적극 참여 및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주요 SDGs 이행 과정 검토

2017 HLPF에서는 빈곤 퇴치와 번영이라는 주제에 속하는 6개의 목표(1, 2, 3, 5, 9, 14)와 매년 검토 예정인 SDG17까지 포함한 총 7개의 목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반적인 의견은 SDGs 이행을 위해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해가고 있으며, SDG 이행을 위한 데이터 매핑, 기관 간의 협업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국가들의 경우, SDGs를 국가 전략에 연계하였고, 지역 및 국제 정책 프레임워크에 통합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SDG1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는 상당한 진척이 있는 반면, 사하라 사막 이

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대다수의 극빈곤층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농촌에는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채 농업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우선적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재난 재해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SIDS의 경우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는 만큼, 인프라 구축, 안정적 에너지 공급, 재건축 등의 빈곤 퇴출을 위한 다른 SDGs와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SDG2는 기아 문제와 빈곤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5%였던 영양 결핍은 2014년부터 2016년에는 1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 기준으로 여전히 5세 미만의 약 1억5천500만 아동이 왜소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 개선 진행 속도로는 2030년까지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인지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왜소 성장률(stunting rate)은 2000년 33%에서 2016년 23%로 감소[2)]하였으나, 이중 4분의 3이 남아시아 및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각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농업중심지표(global agriculture orientation index: AOI)는 2001년 0.38에서 2013년 0.24, 2015년 0.21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은 다른 SDGs와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식품 시스템, 환경, 물, 위생, 기후변화, 사회 정의, 건강, 평화, 안정성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따라서 농업은 식량 생산이 전부가 아닌 다기능적인 산업으로 소득, 고용, 평화, 안정성 등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식품 시스템의 생산과 소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건강 보건 주제로 다분야 특성을 가지고 있는 SDG3은 특히 인권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 인지도 개선과 여성의 역량 강화 부문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산모 사망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7.5%씩 감소시켜야 한다. 영아 사망률의 경우 2015년 기준 1천 명당 43명으로 2000년 대비 44% 감소하였으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아직 1천 명당 84명으로 높게 나타난다[3)]. 이들은 전염병,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건 시스템 접근성은 매우 낙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분야에서의 발전이 있지만, 청소년, 원주민, 노인, 취약 계층, 이주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소외 계층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펀딩, 기술 및 혁신이 필

2) UN ECOSOC (2017),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2017/66*), p.3
3) 전게서, p.8

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섹터 구분 없이 공공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다루고 있는 SDG5의 경우 목표라기보다는 사회적 번영 및 2030 어젠다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은 법적 · 정책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전히 여성이 가정을 돌보거나 집안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폭력 및 조혼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교육의 기회 및 의사 결정권 박탈, 재원으로부터 제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에 여성 역량 강화가 빈곤 탈출 및 경제 성장과 연관성이 높은 것에 공감하며 목표 이행을 위한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조업을 경제 개발의 기본적인 동력으로 간주한다면, 인프라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라 볼 수 있다. 기술 집약적인 상품이 산업 경제를 주도하며 선진국 제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1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DG9와 관련하여 선진국에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지원[4]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본 서비스 제공 및 기술 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 증대를 위한 재원 및 ICT 접근성을 보장함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역 장벽 및 관세·비관세 장벽을 제거함으로 포용적 성장을 목표하며,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서민층 수요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SDG14는 기후변화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해양생태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불법 조업 및 남획, 해양오염 외에도 부영양화 및 산성화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피해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해양자원의 생산력은 증대시키면서도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수산물의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해양 산성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해양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2020년 회의(Ocean conference 또는 UNFCCC COP 26)를 통해 해양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국별 관리가 아닌 국제적 관리를 위해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한다.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해 이행 수단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 SDG17은 SDGs의 포괄적인 재원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4) 개발도상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ODA는 2015년 기준으로 570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2010년 대비 32% 증가한 수준. 주로 운송 및 에너지 섹터에 투입됨 (전게서, p.11)

AAAA) 이후 지난 2년간 눈에 띄게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1,426억 달러로 8.9% 증가하였고 ODA기록을 갱신했으며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과 함께 독일이 GNI 대비 0.7%를 달성하였다.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AAAA의 주류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 큰 다자 협력의 필수 불가결성을 강조하고 통합된 국가 자금 조달 체계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도전 과제가 존재하고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채널 발굴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재원은 단순히 금융적 의미만이 아닌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위한 기관 거버넌스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SDGs 달성을 위해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과학기술은 SDGs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새로운 기술로 인해 사회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3. 자발적 국별 검토 (2017 VNR)

2017 HLPF의 후반부는 자발적 국별 검토로 이루어졌다. 2017 VNR에는 총 43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유럽 12개국, 남미 11개국, 아시아 13개국, 아프리카 7개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은 2016 HLPF에서 한차례 자발적 국별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보다 구체적 전략 수립 이후 다시 참여할 예정이다. 2017 VNR은 전반적으로 최고 수준의 정부의 헌신과 정치적 리더십을 보이는 광범위하고 영향력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평가 가운데 각국은 SDGs 이행을 위해 국가 전략 및 계획에 내재화 작업에 돌입하였음을 발표하였다. 국제사회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향후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 향상도 뒤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표 1] 2017년 자발적 국별 검토(VNR) 참여국(43개국)

아프가니스탄	코스타리카	일본	페루	아르헨티나
키프로스	요르단	포르투갈	아제르바이잔	체코
케냐	카타르	방글라데시	덴마크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벨라루스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스웨덴
벨기에	에티오피아	몰디브	타지키스탄	벨리즈
과테말라	모나코	태국	베넹	온두라스
네팔	토고	보츠와나	인도	네덜란드
우루과이	브라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칠레	이탈리아	파나마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웹사이트

스웨덴은 다른 국가들이 비해 상대적으로 SDGs의 내재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모든 정부 부처에서 SDGs와 연계된 시행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를 설립하여 2017년 6월 2030 어젠다 행동 계획을 제안하였다. 또한 ODA 역시 중요한 SDGs 이행수단으로 GNI대비 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발간된 통계 보고서[5]에 의하면 SDGs 이행을 위한 지표 120여 개를 제시하고, 이 중 49개 지표는 달성하였다. 이는 SDGs 지표[6]의 약 20% 정도에 달한다. 이 밖에도 2016년 이미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 간의 플랫폼을 형성하여 SDGs 이행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나아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사회 협정 간의 연관성 이해 및 관계자들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기후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회복 경로 구축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내 소득 격차를 줄이고, 보건과 교육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일본은 2016년 총리 주관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SDGs 활성화 본부(SDGs Promotion Headquarters)'를 설립하여 부처 간 협업을 도모하고, 포괄적인 SDGs 이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하였다. NGO, NPOs, 학계, 민간 부문 및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회의를 통해, 2016년 12월에는 'SDGs 이행 가이드 원칙(SDGs Implementation Guiding Principles)'을 채택함으로 SDGs 내재화 작업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총 8개 중

5) SCB (2017) Statistisk uppföljning av Agenda 2030, 스웨덴 자발적 국별 검토 p.16 에서 재인용
6) SDGs 지표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세한 최신 지표는 A/RES/71/313 참조

점 분야[7]와 140여 개의 이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Bertelsmann Foundations과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보고서에 의하면, SDG1, 5, 7, 13, 14, 15, 17에 보다 많은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일본은 해당 분야 강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SDGs 이행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개발 협력 측면에서는 2015년 채택된 개발 협력 선언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통한 빈곤 퇴출, 보편적 가치 공유 및 평화적 안정적 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국제공동체 구축을 중점적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ODA 규모 확대, 중동과 아프리카 대상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도상국의 국내 SDGs 이행 시스템 구축에 적극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43개 VNR에 대한 공통된 의견으로는 이해 관계자들이 SDGs 실현에 사회 전체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주인 의식(Ownership)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SDGs를 국내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국가가 지면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공약 마련은 물론 다양한 공동체 리더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정부 기관과 시민 사회 간의 조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의제를 국유화하고 현지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 흐름과 파트너십이 요구되며, 다양한 사람들이 SDGs 이행에 적극 관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참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외에도 SDGs 목표 간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 예산 및 제도적 구조 수립이 되어야 하며, 통합된 접근을 바탕으로 정책 일관성을 높일 것을 언급하였다.

4. 2017 UN HLPF 의의 및 향후 일정

2017 HLPF는 UN 총회 결의안 70/299 채택 이후 SDGs 목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첫 해로, 각 목표별 국제사회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과정이었다. SDGs 이행은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각 국가의 책임과 행동이 실현되어야 가능하다. 전반적으로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국가 이행 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

7) ① 역량 강화 (SDG 1, 4, 5, 8, 10, 12), ② 건강과 장수 (SDG 3), ③ 시장 창출, 농촌 활성화, 과학 기술 혁신 촉진 (SDG 2, 8, 9, 11), ④ 지속 가능한 회복 가능한 토지 이용, 질적인 인프라 구축 (SDG 2, 6, 9, 11), ⑤ 에너지 확보, 재생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물질 순환 사회 (SDG 7, 12, 13), ⑥ 환경보호, 생물 다양성, 산림, 해양 (SDG 2, 3, 14, 15), ⑦ 평화, 안전, 보안 사회 (SDG 16), ⑧ SDGs 이행 수단 및 프레임워크 강화 (SDG 17), 일본 자발적 국별 검토 p.5

으로 평가하였으며, 목표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재난 위험 경감, 무역 및 인권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과 일관성이 갖추어져야 함을 인지하였다. 국제사회의 포용적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국가들이 ODA 공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행수단 강화 및 새로운 자원 창출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2017 HLPF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파트너십 증진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확인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국별 책임과 행동이 강조되는 만큼, 향후 한국의 두번째 VNR 참여시 SDGs 내재화 및 보다 구체적 전략 수립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8년 HLPF는 7월 9일부터 18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되며, '지속 가능하고 회복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이라는 주제하에 SDGs 6, 7, 11, 12, 15, 17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18년 VNR은 48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8]. 한편, 국가차원의 SDGs 이행 전략 수립 및 AAAA의 주류화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HLPF에서 공여국의 ODA 전략 또한 진전을 보일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표 2] 2018년 자발적 국별 검토(VNR) 참여 신청국 (48개국)

알바니아	에콰도르	리투아니아	세네갈	안도라
이집트	말리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그리스
몰타	슬로바키아	오스트레일리아	기니	멕시코
스페인	바하마	헝가리	나미비아	스리랑카
바레인	아이슬란드	니제르	팔레스타인	베넹
아일랜드	파라과이	수단	부탄	자메이카
폴란드	스위스	카보베르데	키리바시	카타르
토고	캐나다	라오스	콩고	아랍 에미리트
콜롬비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우루과이	도미니카 공화국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출처: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웹사이트

8) 이로써 2016년 22개국, 2017년 43개국, 총 104개국 (중복 제외)이 VNR을 이행. SDGs 기간 동안 적어도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A/70/684, p.16, para.80)하였는데, 베넹, 콜롬비아, 이집트, 멕시코, 카타르, 스위스, 우루과이 등 총 7개국이 2018 참여를 통해 두 번째 검토 예정이며, 토고는 세 번째 검토 의사를 밝힘.

참고문헌

김지현 (2016)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 과정 검토, 개발과 이슈 제 26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G20 Germany (2017) Hamburg Update: Taking Forward the G20 Action Plan o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flection Group (2017) Spotligh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7 (https://www.2030spotlight.org/sites/default/files/download/spotlight_170626_final_web.pdf, 접속일: 2017.11.15.)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Websit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 접속일: 2017.11.15.)

UN DESA (2017) Voluntary National Reveiws Synthesis Repor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vnrs/, 접속일: 2017.11.15.)

UN ECOSOC (2016) Report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t its 2016 session (E/HLPF/2016/8)

_____(2017a)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2017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the theme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E/HLS/2017/1)

_____(2017b)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2017/66*)

UN General Assembly (2013) Format and organizational aspects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A/RES/67/290)

_____(2016) Follow-up and review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global level (A/RES/70/299)

_____(2017) Work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pertaining to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1/313)

[부록: 2017 자발적 국별 검토(VNR) 요약]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아프가니스탄	• 정부 부처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하며, 시민 사회, 민간 부문, 학계 및 언론과 함께 약 50회에 걸친 워크샵, 세미나, 컨퍼런스를 개최 • SDGs 달성을 위한 부처 간 활동을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위원회(NCC)를 설치하여 최고 레벨 플랫폼 기능 제공 • SDGs 목표 및 지표를 국가적 목표로 추진하는 단계에 있으며 현재 8개의 예산 분야로 배분한 상태
아르헨티나	• 국가 사회 정책 조정 위원회 중심의 2030 의제 이행 및 모니터링 시행 • 주인의식 고취, 자원 활용 및 파트너십 강화 필요
아제르바이잔	• 2016년 전략적 로드맵을 채택하여 신 고성장 섹터 지원 강화 강조 • 전략적 로드맵과 국가 차원의 SDGs 성취에 정교한 지표 체계 및 정책 입안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 필요 • 지방 및 국제 파트너들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웹 기반 플랫폼 구축 예정
방글라데시	• SDGs를 제7차 5개년 개발 계획 (2016–2020)에 포함시켰으며, 여러 이해 관계자의 참여 촉진을 위한 'Whole of Society' 접근 전략 채택 • 국무총리실에 'SDGs 이행 및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 • 자원 활용, 이해 관계자 참여, 데이터 이용성 및 관리, 지역 차원에서 SDGs 동참 등의 해결 과제 직면
벨라루스	• 글로벌 및 지역 수준에서 상호 이익적인 협력과 역량 강화 경험 및 개발 목적 기술 전수 공유의 중요성 천명 • 접근 가능하고 적절하며 신뢰 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강조 및 데이터와 지표의 격차 문제 언급 • SDGs 달성 및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정 기구 설치
벨기에	• 연방 정부 수준에서 통합 계획과 전략을 채택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일치성 및 이해 관계자 간 협력과 조정 강조 • VNR은 SDGs 이행 의무를 상기시키고 올바른 접근법 채택에 기여한다고 표명
벨리즈	• 'Horizon 2030' 국가개발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며 장기적 국가 전략 수립 • SDGs 목표 중에서도 5번 양성평등과 14번 수자원 보호에 우선순위 정립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베닌	• 주인 의식 강화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 참여를 위한 고위급 세미나 개최 • 4가지(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 주제에 따른 워킹그룹 설치 • 주요 목표의 60~70%를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전략으로 채택
보츠와나	• 국가 SDGs 로드맵에서 조정, 주인 의식, 리더십 및 SDGs 이행과 데이터 이용에 중점을 두고 향후 5개년 계획을 포함 • SDGs 목표 가운데 1, 2, 3, 5, 9, 17에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SDGs를 반영한 국가 비전(2016–2036) 채택
브라질	• SDGs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2030 의제 이행 과정 투명성 강조 • 극빈곤층 퇴치 및 양성평등 진흥에 진전을 보이며 2017년 HLPF 주제 실현 위해 노력
칠레	• SDGs 국가 네트워크 개발 및, 공공, 민간, 시민 사회, 학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및 워킹그룹 설치 • SDGs 인식 개선 강조 및 워크샵과 중앙 및 지방 간 대화 등 개최 • 2030 의제의 통합성, 불가분성, 보편성을 강조하며, 정부, 민간, 시민 사회의 분담된 책임 필요 표명
코스타리카	• 2015–2017 국가 개발 계획에서 빈곤 극복,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달성, 회복력 있는 인프라와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구축에 방점 • SDGs의 적절한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거버넌스 구조 구축 • 다각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SDGs 이행에 노력을 기울이나 장기적 전략 미흡이라는 도전 과제 직면
키프로스	• SDGs 3번째 목표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경제 위기 직후 높은 공공 부채 및 실업률, 수입 에너지 의존 등의 해결 과제
체코 공화국	• '체코 공화국 2030' 전략을 채택하며 사회, 환경, 경제 및 거버넌스, 글로벌, 지역 개발 강조 • 2030 의제 이행에 있어 지속 가능한 개발과 웰빙에 방점 • VNR을 통해 SDGs 관련 국가개발전략을 재검토 및 이행 현황 평가가 가능하다고 표명
덴마크	• SDGs 국가 시행 계획 수립 및 5'P(Prosperity, People, Planet, Peace and Partnership)에 중점을 두며 37개 세부 목표 설정 •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글로벌 참여 강조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엘살바도르	• 2030 의제를 바탕으로 여러 주체들과 대화를 통해 장기적 개발 협약 추진 • 이행 로드맵 설치 및 SDGs 정부 분야 주류화 노력 및 정부 관계자 488명 트레이닝 제공 • 국내외 개발 재원 동원과 국가계획 및 예산 시스템 연계성 강화가 주요 해결 과제라고 발표
에티오피아	• VNR 준비 과정을 통해 법, 정책, 계획 등을 검토하고 통계 자료 분석 및 정리를 하였으며 포괄적인 국가적 협의를 실시하였다고 발표 • SDGs를 제2차 5개년 성장 변혁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10개 분야에 우선순위 정립
과테말라	• SDGs 이행과 'K'atun Nuestra 과테말라 2032 국가 개발 계획'의 일치를 위한 협의, 기술적 분석 강조 • 섹터간, 기관간 협력 및 2030 의제 이행 과정 M&A 체계 강조
온두라스	• SDGs 관련 개발 활동을 국가 계획에 통합시키고 핵심 개발 주체를 포함시키는 제도적 개편 노력 • 전략적 결정을 수행하는 고위급 위원회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자문 역할의 기술 위원회 설치
인도	• 3개년 시행 계획 발표 및 국가 비전과 전략 준비 단계 • 다수의 SDGs 이행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SDGs 1, 2, 3, 5, 9, 14, 17번 목표에 기여
인도네시아	•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적 기회 강화에 방점 •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을 통한 주인 의식 고취, SDGs 이행의 체계적인 틀 형성 강조 및 자국의 개발 성과 표명
이탈리아	• '국가 개발 전략(NSDS) 2017/2030' 채택을 통해 2030 의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프로그래밍화 추진 •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과 파트너십 및 시민 사회 참여 강조 •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을 NSDS의 5가지 핵심가치로 채택
일본	• 총리 산하 'SDGs 추진 본부'를 설치하여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 강조 및 여러 이해 관계자가 참석하는 원탁회의 실시 • SDGs 목표 가운데 8개 분야에 우선순위 정립 • 평과 과정, 후속 조치, PPP를 통한 참여 확대 강조
요르단	• 협의를 통해 주인 의식 고취, SDGs 이행과 달성을 위한 국가 로드맵 제시 및 국가 비전과 전략 수립을 통해 사회, 경제적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 시리아 내전에 따른 인프라 및 서비스 복원 관련 예산 조성이 도전 과제라 표명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케냐	• SDGs 17개 목표를 포괄하는 '비전 2030 중기계획2' 채택 • 51개 국가와 문화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소말리아 평화 미션' 참여
룩셈부르크	• 정부 협력, 시민 사회 참여, 정책 일관성을 위한 거버넌스 강조 • 사회적 포용성, 경제 다양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이동 및 기후 변화 등의 해결 과제 발표
말레이시아	• 경제,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한 제11차 말레이시아 5개년 개발 계획을 통해 SDGs 실현 노력 • 사람 중심의 개발 및 모든 사회 분야의 참여 및 혜택을 강조하는 국가 개발 계획 표명
몰디브	• 혁신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하며 SDGs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서 이해 관계자의 인식 개선 필요 • 장기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 및 데이터 수집과 관리 관련 기술적 전문성 필요 • 정부 부처 간 협력 강화와 데이터 통합 체제의 중요성 표명
모나코	•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변환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이행 및 환경 보호와 수자원 보존 강조 • 과학계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SDGs 실현 노력
네팔	• 제14차 국가계획(2016/17–18/19) 및 분야 별 국가 수준 프로그램에서 SDGs 반영 • 총리 담당 추진 위원회, 국가계획의회 부위원장 담당 조정 위원회, 국가계획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주제별 위원회 설치를 통해 SDGs 이행 노력 • SDGs 1, 3, 5, 9 목표 달성에 자국의 기여 표명 및 지역 계획 및 예산 체계에서의 SDGs 주류화의 어려움 언급
네덜란드	•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파트너십 형성 강조 및 자국의 4개 왕국 모두 현재 개발 계획에 SDGs 반영 천명 • 정책 일관성 시행 계획에서 무역 협정, 투자 보호, 탈세, 외환 송금 비용, 지속 가능한 가치 사슬, 의약품 접근성, 기후변화 및 식량 안보 강조
나이지리아	• SDGs 이행 강화를 위한 다층적인 제도적 틀 구축 및 조건부 무상 원조 규모 확대 • 기술 기반 보고 체계 구축 강조 및 관료주의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 필요 • 오일 및 가스 분야에 대한 의존성 문제, 인프라 및 기술 격차를 주요 해결 과제라 표명
파나마	• NGOs, 교회, 학계, 산업계, 원주민, 정당 및 정부 부처 등 모든 분야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SDGs 달성을 위한 'Panamá 2030' 채택 • 상호 연결과 교차적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 퇴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SDGs 3, 4, 8, 16을 강조
페루	• 2030 의제를 반영한 국가 비전 수립 협의 단계이며 초기 조사를 바탕으로 아웃라인 제시 • 아웃라인을 국가 수준에서 SDGs 이행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주요 해결 과제라고 언급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포르투갈	•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과 확대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 표명 • 5Ps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Partnership)에 중점을 두며 SDGs 4, 5, 9, 10, 13, 14에 우선순위를 정립
카타르	• 인간, 사회, 경제, 환경개발을 주축으로 하는 국가 개발 전략 및 지표 수립 • 통계 시스템 현대화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표명
슬로베니아	• SDGs의 17개 목표를 전부 반영하는 국가 수준의 개발 전략 2030 채택 예정 • VNR 통해 이행 현황 검토 및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SDGs 달성 강조
스웨덴	• 국가, 기업, 사회 파트너, 시민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위해 노력 • 모든 정부 부처에서 SDGs와 연계된 시행 계획을 마련한 상태이며 국내외적으로 SDGs 이행 지원 업무를 위한 위원회 설치 •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관련 적절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표명
타지키스탄	• 국가 수준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개발에 노력 • 에너지 효율성과 안보 및 빈곤 퇴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위험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정 • 이행 및 성과 달성 기여를 위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보다 확대된 참여 강조
태국	• '20개년 국가전략체계 및 제12차 국가 경제 사회 개발 계획'에 SDGs 반영 표명 • 국가 수준의 지속 가능한 개발 위원회(CSD)를 설치하여 정책 및 전략 구상 • SDGs 이행에 필요한 법적·경제적·사회적 조치 검토; 다수의 기관과 협력; 자국 성과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 준비를 위한 임시 위원회 설치
토고	• VNR 준비 과정에서 모든 정부 이해 관계자의 참여 및 포용 표명 • SDGs 통합 체계에서 주인 의식과 국가 계획에서 SDGs의 적절한 반영 강조
우루과이	• 사회 개발부 설립 및 제도적 통합, 긴급 계획 채택 및 헬스 케어 개혁 시도를 바탕으로 한 빈곤 감소 기여 • 국가 혁신 및 연구기관 설립을 바탕으로 혁신적 · 과학적 · 기술적 시스템 구축
짐바브웨	• 전략적 보호 무역 주의 정책, 옥수수 생산 특별 프로그램, 기업 활동 완화 개혁, 경제 특별 구역 법 제정 등의 노력을 통한 성장 기대 • SDGs 목표 우선순위 정립 및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통합 및 일치 강조

* 자세한 내용은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웹사이트(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의 국별 평가 참조

연구자료
ODA연구 2017-25-140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 하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ODA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번지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